

지역 소식통

광활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두부 나눔행사

김제시 광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관수)는 17일 자치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두부 나눔행사에 사용할 서리태콩을 식재했다.

주민자치위는 광활보건지소 옆 유희지를 활용하여, 주민자치 특색사업인 화합과 나눔의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서리태콩을 식재·수확해 '사랑의 두부 나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매년 고추와 배추를 식재하여 감장나눔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연달이던 여리기관에서 감장김치 나눔행사를 추진, 사업이 중복되어 지난해부터 직접 생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관내 20개 마을 경로당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지역사회가 한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콩 수확량 증대를 위해 지난 해에는 15톤 트럭 13대 분량의 흙으로 복토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콩심기를 비롯하여 친환경 농약 살포, 제조작업, 콩 순 자르기, 수확 등 일련의 모든 작업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량면, 연기없는 친환경 방역소독 추진

김제시 부량면(면장 임영하)이 올해 하계방역을 친환경 연무 소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연무소독은 기존에 살충제에 경유를 섞어서 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물과 식물성 확산제 및 살충제를 희석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방역때와는 달리 연기와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어 육안으로 보기에는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오히려 살충효과가 2~3일 더 지속되고 주민의 건강에도 무해해 기존의 연막소독이 가진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부량면은 지난 6월 초부터 주 5일간 일몰 후 약 2시간 반 가량 대형연막 소독기를 활용, 관내 7개리를 트럭으로 이동하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 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형 복지모델' 구축 시동

군, '복지모델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융합복지 모델 기대감 상승

완주군이 완주형 복지모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완주군은 17일 '완주형 복지모델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에 맞는 미래 지향적, 지속가능한 복지모델 구축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용역

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흥원박사, 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흥원 박사가 용역 추진 계획과 복지모델 발굴 용역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용역은 복지예산 분석, 사회보장 현황, 복지전달체계, 서비스 확충, 복지사업 구조화 등 복지의 환경을 진단, 분석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완주형 복지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용역을 통해 완주군의 현 사회복지 현황 및 정책 환경이 정확하게 진단·분석되고,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농업 등 특성을 잘 살려 융합 복지모델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형 복지모델 연구용역을 통해 모든 군민에게 공평한 복지와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이 되는 모델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수료식

예비 귀농인 교육생 60명 수료

2020년 귀농·귀촌 기본교육 수료식이 17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열렸다.

기본교육은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초농업기술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매년 예비 귀농인들에게 인기 있는 귀농 정착지원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달 귀농·귀촌협의회장의 '성공 귀농·귀촌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연 교육은 귀농·귀촌 성공 사례, 농산물 마케팅, 선도 농가 실습,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꾸준히 교육 참여자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기념촬영, 축하, 교육생의 소감발표 시간을 가졌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귀농귀촌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생 60명이 수료했다.



2020년 귀농·귀촌 기본교육 수료식이 17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열렸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 교육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농업·농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매년 실시하는 귀농·귀촌

전문교육을 통해 귀농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제시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기를 원하는 귀농·귀촌인 100%를 정착시킴으로써 명실공히 김제시를 귀농 1번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영양 교육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지역아동센터 11곳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매일 1회 '엄마손 영양가득 건강간식'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엄마손 영양가득 건강간식 사업은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식생활지침, 영양

표시 읽기, 건강식단 알기 등 영양교육을 하고, 재철과일을 이용한 건강간식 만들기 조리실습과 건강간식을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간식을 선택하고 올바른 식생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김제시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성장기에 꼭 필요한 재철과일을 제공해 섭취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증진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환경과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보냈다.

"농민과 함께 양파 수확했어요"

완주군 환경과 직원 20여명, 고산면 외율마을 양파농가 수확 돕기

완주군 환경과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보냈다.

완주군은 환경과 직원 20여명이 최근 고산면 외율마을 양파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도왔다고 17일 밝혔다.

양파는 수확시기를 놓칠 경우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적기에 수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과 직원들은 농가 수확을 돕고, 농촌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하면서 농민들의 영농에 관한 정보 및 애로사

항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일손돕기 도움을 받은 농가는 "무더운 날씨 속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한마음으로 수확작업을 도와줘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많은 농가들을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런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매년 농촌 일손돕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공주팔쥐도서관, 비대면 도서예약대출서비스 실시

완주군 공주팔쥐도서관이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도서예약대출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생활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공주팔쥐도서관 도서예약대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서예약대출서비스는 공주팔쥐도서관 자료실 운영시간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완주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wanju.go.kr>)에서 대출 희망 도서를 예약한 후 익일부터 3일 이내 도서예약대출함에 도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신청은 완주군 도서관 회원으로 1인 5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동일도서를 여러 이용자가 신청할 경우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주민에게 안심하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용객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



스를 파악해 안전한 지식정보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와 도서관 4~5층 증축공사로 임시휴관 중이었던 공주팔쥐도서관은 지난 5월 11일부터 재개관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린이·종합자료실이 운영되고,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로 자료실에서 도서 대출반납만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